

## 19회 성전과 두 증인 (요한계시록 11:1-13)

### 1-2절. 측량

1, 2절은 비유로서 예언적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. 요한은 지팡이 같은 갈대를 받고 “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”하라는 명령을 받는다. 그는 또한 “성전 밖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마흔 두 달 동안 짓밟으리라”는 말씀을 듣게 된다. 이러한 말씀에 관하여 다섯 가지 해석의 관점<sup>1)</sup>이 있으나 여기에서는 상징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하려고 한다.

측정하는 일은 에스겔 40-48장에 나오는 성전 예언의 배경에서 이해해야 한다. 거기에는 성전의 보호와 확실한 설립이 성전의 여러 군대를 측량하는 천사에 의해서 상징적으로 묘사되어지고 있다. 계시록 21:15-17절에서도 또한 동일한 에스겔 본문을 의지하는데, 한 천사가 “측량하려고 금 갈대를”가졌다. 여기에서 측량하는 일은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상함과 속이는 자들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을 말하고 있다 (21:27). 이러한 비상선을 치고 보호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말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. 이 성전 공동체는 유대인들과 이방 크리스천들을 포함한다(3:12; 21:12-14, 24-26; 22:2). 에스겔과 계시록에서 측량하는 것을 통하여 상징적으로 말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약속이 변할 수 없음이다.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영원할 것이며 “정결한 공동체” 속에 임하실 것이다.<sup>2)</sup>

1) 첫 번째로, 세대주의적 해석이 있다. 이 해석은 11:1-2절을 그리스도의 재림 바로 이전에 나타나게 될 대 환란의 때라고 본다. 성전과 제단은 문자적으로 “거룩한 도시”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복원될 것으로 보는 것이다. “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”은 민족적인 유대인으로 남은 자들이라고 본다. 두 번째로, 과거주의 해석으로 이것도 문자적인 접근을 사용한다. 이 해석은 성전과 제단 그리고 바깥마당을 실제적인 예루살렘 성전으로 보지만, 이것들을 미래적인 성전으로 보지는 않는다. 본문에서 묘사된 사건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에 문자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. 세 번째로, 수정 미래주의 해석이 있다. 이들은 세대주의 자들과 같이 이 사건들을 미래적으로 해석을 하지만, 상징적인 묘사로 이해한다. 제단과 성전과 경배하는 자들은 “측량”되는 것에 의하여 역사의 마지막에 구원이 보장되는 민족적인 이스라엘이라고 말한다. 성전 밖 마당과 거룩한 성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로 해석된다. 이들의 구원은 보장되어지지 않는다. 이 두 그룹은 공히 핍박을 받게 될 것이며 마흔 두 달 동안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. 네 번째로, 이 해석은 수정 미래주의와 비슷하지만, 미래적인 모습을 격하시키지는 않는다. 바깥마당은 믿는다고 고백은 했으나 배교해 버린 교회를 말한다. 이들은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속임을 당할 것이고 박해하는 자들에 타협하게 될 것이다. 다섯 번째로, 이 해석은 상징적인 것이지만, 바깥마당을 고난 받기 쉬운 영적이고 진정한 이스라엘로 해석한다. 이 관점은 언어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해석인데, 그 이유는 “버려 두다”라는 말이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일을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. 그들은 믿지 않는 세상에 의해서 박해를 받을 것이며 배척받을 것이기 때문이다(마 21:39; 막 12:8; 눅 4:29; 20:15; 요 9:34-35; 행 7:58). 측량하는 일의 중요성은 그들이 비록 육체적으로는 고난을 받을 것이지만, 그들의 구원은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. 이것은 7:2-8에 나타난 “인을 친다”는 개념의 더욱 확장된 개념이라 할 수 있다.

2) G. K. Beale, The Book of Revelation 559.

계시록 11장에서 측정하는 일은 역사의 종말이 오기 이전에 이 땅에 사는 성전 공동체의 안전을 확보해 주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암시하는 것이다.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없으므로,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의해서 지탱되어지는 것이다. 11장에서 하나님의 종말론적 임재하심이라는 약속은 크리스천 공동체가 시작될 때부터 의미가 있게 되었다.<sup>3)</sup>

어떤 주석가들은 “성전”이 크리스천들을 위한 은유라고 생각한다. 다른 방식으로 말하면, 그것은 진정한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다. 구약에서 “하나님의 성전”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땅 위에서 독특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였다. 새로운 성전을 예언하는 에스겔 40-48장에서(특히 43:1-12; 37:26-28) 하나님은 그의 임재하심이 영원토록 다시 이루어질 것임을 약속하신다. 계시록 11:1절에서 그 초점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머무르는 전체적인 영적인 성전의 언약 공동체에 맞추어져 있는 것이다(또한 고전 3:16-17; 6:19; 고후 6:16; 엡 2:21-22; 벧전 2:5을 보라). 이것은 단순히 에스겔 성전 예언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만은 아니다. 이것은 구속사적인 이해를 말하는 것이다: 에스겔에 의해 예언된 것이 실제로 진정으로 영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, 새로운 창조 세계에서 영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완전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(계 21:1-22:5절을 보시오). 요한복음 2:19-22절에서 주님께서는 이미 그의 부활된 몸이 진정한 성전임을 천명하셨다. 이 사실이 계시록 21:22절에서 확장되어 나타나는 것이다. 계시록 21장에서 요한은 “성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양이 그 성전이심이라”라고 말한다.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크리스천들도 역시 성전과 동일시 될 수 있는 것이다.<sup>4)</sup>

“마흔 두 달”이라는 숫자는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고, 다니엘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예언되어진 종말론적인 환난의 기간을 상징화한 숫자이다(단 7:25; 9:27; 12:7, 11-12). 유대 문헌들은 다니엘의 삼 년 반이라는 기간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해한다: 믿는 자들이 겪게 될 일반적인 환난의 시간(*Midr.* Ps. 10:1),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의 기간(*b. Sanhedrin* 97b), 또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구원이전에 반듯이 지나가야 될 기간(*b. Sanhedrin* 97b-98a). 다니엘과 계시록에 있어서 이러한 기간들이 동일한 형태를 띠고 나타나는가 하는 문제는 분명치 않다. 그러나 여기에서 “마흔 둘”이라는 숫자와 13:5절에서의 숫자는 아마도 엘리야의 심판의 사역을 다시 회상케 하기 위하여 의도되어졌을 것이다. 동일한 방식으로 이것은 이스라엘의 광야에서의 방황시기를 말하는 것으로 의도되어졌을 것이다.<sup>5)</sup> 이러한 해석은 본문 6절의 지지를 받는다: “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달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.”

3) Ibid.

4) Ibid. 562.

5) Ibid. 565.

“마흔 두 달”은 또한 “삼 년 반”으로도 표현되는데 이것은 특히 성전에 대한 것으로서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을 말할 때 사용된다. 또한 12:6절의 “일 천 이 백 육십일”과 12:14절의 “한 때와 두 때와 반 때”도 11:1-2절의 반영으로서 교회 시대를 통하여 믿음의 공동체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. 그러므로 삼 년 반이라는 기간은 성도들의 운명에 대하여 두 가지 관점을 보여주고 있다: 먼저는, 그들이 환난을 당하게 될 것(11:2; 12:14; 13:5-6)과, 다음으로 궁극적으로 영적인 상처로부터 보호받게 될 것임을 보여준다. 공동체로서 그들의 존재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까지 보호받게 되는데, 그 이유는 그들이 증인으로서 증거 하는 일을 성취하기 위함 때문이다(11:3; 12:4, 14).<sup>6)</sup>

### 3-13절. 책의 내용- 교회의 순교와 열방의 회개

그 책의 내용은 교회의 신실한 증거와 죽음이 온 세계의 열방을 회심시키는데 도구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다. 그들의 승리란 7장에 나타나듯이, 심판 받기로 되어있는 세상으로부터 그들 자신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, 온 세계의 구원을 의미한다.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택한 백성들을 구원함으로써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, 이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선택된 백성의 희생적 증거가 반역하는 나라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게 할 때 임하게 되는 것이다. 하나님의 백성들은 열방들에 대한 예언적인 증거를 수행하기 위해서(11:3-13) 만국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것이다(5:9).<sup>7)</sup>

두 증인 이야기가(11:3-13)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. 여기에 있는 두 사람은 세상에 대해 신실한 증인의 역할을 하는 교회를 상징한다. 이 이야기에 나오는 일련의 사건들이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의 일련의 사건들에 관련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. 그 이야기는 교회의 증거의 본질과 그 결과를 극화시키는 하나의 비유 같은 것이다.<sup>8)</sup>

두 증인이 세상에서 증거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를 상징한다는 사실은 그들을 두 촛대들로 나타나는데 잘 드러나고 있다(11:4). 촛대는 1장(1:12, 20)에서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. 2라는 숫자는 잘 알려진 대로 두 명의 증인이 있을 때만 그 증거가 채택될 수 있다는 성경적 요구에 상응하고 있다(신 19:15). 그러므로 그들은 신실한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교회를 의미한다. 증인들로서의 그들은 또한 선지자들인데(11:3, 10), 이것은 특히 구약 성경의 엘리야와 모세를 본뜨고 있다(11:5f.; cf. 왕하 1:10-12; 왕상 17:1; 출 7:14-24).

11:8절은 두 증인의 죽음을 위한 주된 전례가 바로 예수의 죽으심이라는 사실을 말해

6) Ibid. 566.

7) Richard Bauckham, The Theology of the Book of Revelation 84.

8) Ibid. 84-85.

준다. 삼일 반 후 그들이 부활과 승천을 하는 것으로 말함으로서 예수의 전례와의 병행을 계속 보여준다(11:11-12): 요한은 복음서에서의 사흘을 전통적인 묵시문학적 숫자인 사흘 반으로 바꾸었다. 그러므로 그 증인들의 증거는 다름 아닌 예수 자신의 증거이며, 그들의 죽음은 어린양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 된다. 이것은 모든 열방에 대한 증거이다(11:9f.). 그들의 예언과 죽음과 부활의 현장인 그 도시는 교회가 열방에 대해서 예언적인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곳이면 어디나 해당되는 것이다.<sup>9)</sup>

심판들만으로는 회개를 이끌어내지 못한다(9:20f.). 그 증인들의 증거가 회개를 이끌어 낸다. 중요한 점은 심판들 자체가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의지를 전달해주지는 못한다는 것이다. 증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있는데(11:3) 그것은 회개의 상징이다(cf. 욥 3:4-10; 마 11:21; 눅 10:13). 이것은 우상 숭배와 악에 매여 있는 세상과 직면하게 될 때(9:20f.), 그들은 한 분 참된 하나님과 악에 대한 하나님의 다가올 심판을 선포함으로써(cf. 14:7) 회개를 촉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. 그러므로 일단 그들의 증거가 그들의 죽음으로 인해 헛된 것으로 나타나지 않고 그들의 부활로 오히려 진리로 확인되면(11:11-13), 이것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게 된다.

11장 13절은 모든 남은 자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. 그것은 9:20f.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(cf. 16:9-11). 나팔 심판들 이후에 “남은 자”들은 회개하지 않았다(9:20). 그러나 증인들의 율음에 대한 확인과 함께 일어난 지진 후, 즉 증인들을 하나님이 부활시키고 지진이 일어나자, “남은 자”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(11:11-13).<sup>10)</sup>

증인들의 증거의 우주적이며 긍정적인 결과는 11:13절의 상징적 숫자에 의해 강조되어 있다. 구약의 예언자들의 심판 선언 속에는 십분의 일(사 6:13; 암 5:3)이나 칠천 명(왕상 19:18)이 신실한 남은 자로 나타나는데 그들은 심판이 대다수를 쓸어 벌릴 때 보존되는 무리들이다. 요한은 이것을 뒤집어 사용하고 있다. 십분의 일이 심판을 받고 십 분의 구가 “남은 자”로 보존되고 있다. 신실한 소수가 아니라 신실치 못한 다수가 보존됨으로써 그들이 회개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. 증인들의 증거에 힘입어, 심판이 실제로는 구원의 행위가 된다. 그 두 증인은 심판 받은 칠천 명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의 회개를 불러일으킬 것이다.<sup>11)</sup>

구약의 선지자들이 하지 못한 이 일을 어떻게 교회의 예언적 증거가 해 낼 수 있는가? 그것은 어린양 자신의 승리로부터 그 능력을 도출함으로써 가능하다. 그의 증거는 죽음의 순간까지도 지속되는, 그리고 그의 부활하심으로 참된 증거로 입증된 증거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. 그를 따르는 무리들의 증거는 그들이 죽음에 이르기까지도

9) Ibid. 85-86.

10) Ibid. 86.

11) Ibid. 87.

충성된 증인이 될 때, 이러한 능력 안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.

사실, 초대교회의 처음 수세기 동안은 이런 방식으로 기독교의 순교가 사람들을 움직이고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게 만들었다. 교회의 증거는 복음의 선포로 되며, 복음을 삶으로- 순교와 부활- 즉, 죽음 당한 어린양의 방법으로 또는 어린양의 피로(즉 아가페의 사랑으로) 부활에 대한 확신으로 이것이 가능하다. 그러므로 교회의 순교적 증거는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함을 보여주는 것이다.<sup>12)</sup>

정리하면, 그 작은 책의 내용은 11:1-13절에 요약되어 나타나고 있다. 따라서 이 본문은 요한의 전체 예언의 중심적인 메시지를 요약하여 담고 있다. 이 본문은 어떻게 열방에 대한 교회의 증거가 일곱 번째 나팔이 울릴 때 도래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와 최후의 심판(11:15-19) 이전에 개입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그 본문의 현 위치에 놓여 있는 것이다. 그리고는 12-15장에서는 악의 세력들과 대항해서 승리하는 교회의 투쟁이 보다 더 자세히 다루어지고 있다. 그리고 계속해서 최후의 심판과 그 결과들이 기술된다(15-22장).

계 11:1-13절과 12-15장은 상호 관련되어 있는데, 11:1-13절에서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는 일련의 새로운 표상들(images)이 12-15장에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: 큰 성(11:8), 증인들을 대적하는 짐승과 전쟁(11:7), 교회가 짐승과 싸우게 될 상징적인 기간(11:2-3). 이러한 표상들은 교회가 짐승과 싸우는 모습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 12-15장에서 다시 다루어진다. 그러므로 11:1-13절 자체는 교회의 증언이 어떻게 열방의 회개와 믿음을 확보하게 되는가를 가장 포괄적으로 다룬 본문이다.<sup>13)</sup>

[퀴즈] “두 증인, 두 감람나무, 두 촛대”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?

답: 교회

---

12) Ibid. 87-88.

13) Ibid. 83-84.